

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 서울시 '안심이'

일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
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거예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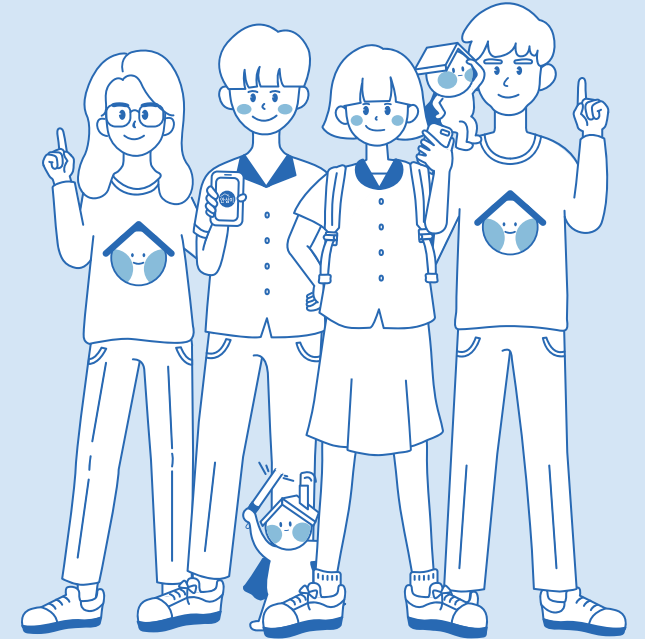
스마트폰에 '안심이' 앱을 설치하면 24시간 안심할 수
있습니다.

'안심이' 앱과 연결된 서울시 25개 자치구 CCTV
관제센터가 여러분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거든요.

위험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앱의 '긴급신고' 버튼을
누르거나, 스마트폰을 세게 흔들면 자동으로 신고할 수
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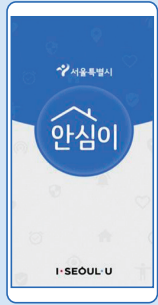
자치구 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내 위치정보와 현장
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경찰 출동 등의 신속한 대응
조치를 취해 줍니다.

일상 속의 위험과 불안,
'안심이'와 함께라면 언제든지 **안심**할 수 있어요!



귀찮길 든든한 친구가 필요하다면 '안심이'와 함께!

'안심이' 이용방법



1

회원가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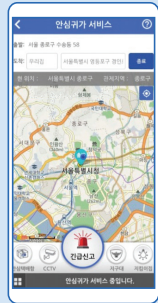
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'서울시 안심이' 또는 '안심이' 검색 후 다운로드 하세요. 앱 실행 후 '휴대폰 인증으로 가입' 또는 '카카오 계정으로 로그인하기'로 간편하게 가입 완료!



2

긴급신고

'긴급신고' 버튼을 누르거나 스마트폰을 세게 흔드세요. 자치구 관제모니터링 화면에 내 상황이 전달되고, 필요할 경우 경찰이 출동해서 지켜줄 거예요.

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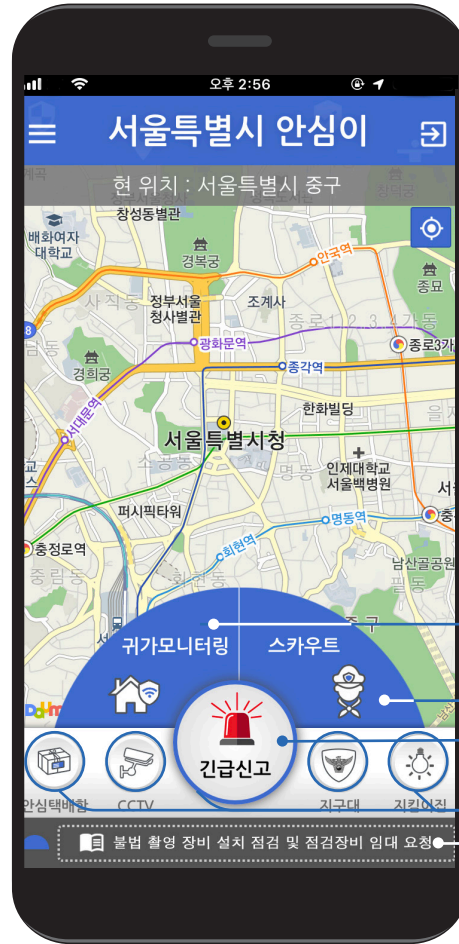
안심이가 모니터링

'귀가모니터링'을 누르고 도착 장소 입력 후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지켜줍니다. 이때 미리 설정해 둔 보호자에게도 출발 문자가 평뎁!

※ 안심이가 스카우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서울시 '안심이'를 알아보자!

'안심이' 앱 주요기능



긴급신고

위급상황시 앱을 실행(흔들기 또는 화면터치)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 자동 신고되고 관제센터는 신고자 주변 CCTV를 관제해 경찰출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

안심이가 모니터링

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늦었을 때 이용하면 자치구 관제센터에서 집까지 가는 길을 모니터링합니다.



안심이가 스카우트

늦은 시간 혼자 집에 가기 무서울 때 신청하면 자치구마다 운영하고 있는 스카우트 대원이 집까지 함께 해줍니다.

※잠깐 안심이가 스카우트는 밤 9시부터 12시까지 신청할 수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,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. (월요일 24시까지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.



안심시설물 정보

안심택배, 방범용 CCTV, 지구대, 안심지킴이집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.



불법 촬영 장비 설치 점검 및 점검 장비 임대 요청

민간, 공공단체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장비 설치 여부, 무료 점검 및 점검 장비 임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(개인 제외).

※ 이용불편사항 문의: 02-2133-5055~6 (평일 9시~18시) / 120다스콜 (야간 및 공휴일)

※ 유의사항

- 건물밀집지역 등은 GPS 음영지역으로 위치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스마트폰 종류에 따라 흔들림 강도가 다르니 설정에서 사용자에 맞게 흔들림 정도를 지정하세요.
-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'나가기(로그아웃)'를 해주세요.